

통제 현상의 연구

전 위 태

이 논문에서는 통제현상을 핵어중심구조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¹⁾ 체계내에서 의미에 바탕을 둔 통제원리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기위해 영어와 한국어의 자료에 적용해 봄으로써 문법현상에 대한 그 설명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통제 현상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논항구조에 기반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GPSG의 통제이론을 일별하고, 이에 대해 상위동사의 의미역할 관계로 통제현상을 설명하는 HPSG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HPSG의 의미적 통제원리로 재 분석하고, 더 나아가 한국어 통제구문에 이들 원리를 적용해 봄으로써 그 이론적 타당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GPSG와 HPSG의 통제 원리의 비교

HPSG는 어느면에서는 GPSG의 수정, 보완, 발전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제구문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함으로, 이 두 이론의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1.1. GPSG 통제원리와 그 문제점

Chomsky는 통제구문을 문장으로 보기 때문에 동사구(VP)의 표현되지 않은 주어 PRO의 설정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이 PRO의 통제자를 찾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GPSG에서는 동사구(VP)를 함수로, 논항을 그에 대한 통제자로 설명하는 논

1) 본 논문에는 Pollard & Sag(1988, 1989a, b), Sag & Pollard(1989) 및 근간될 Pollard의 HPSG volum II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항구조에 바탕을 둔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통제자를 정해주는 통제의 정의²⁾가 필요하다.

GPSG에서의 통제관계는 통사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이 있는데 통사적 측면은 일치에 관한 현상으로 이것은 통제 일치 원리(Control Agreement Principle: CAP)³⁾로서 자질(feature)상의 일치현상으로 설명한다.

다음에서 보자.

- (1) a. They persuaded her to wash herself.
- b. They promised her to wash themselves.

여기서 (1b)를 수형도(tree)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GPSG(Gazdar et al. 1985: 88)에서는 control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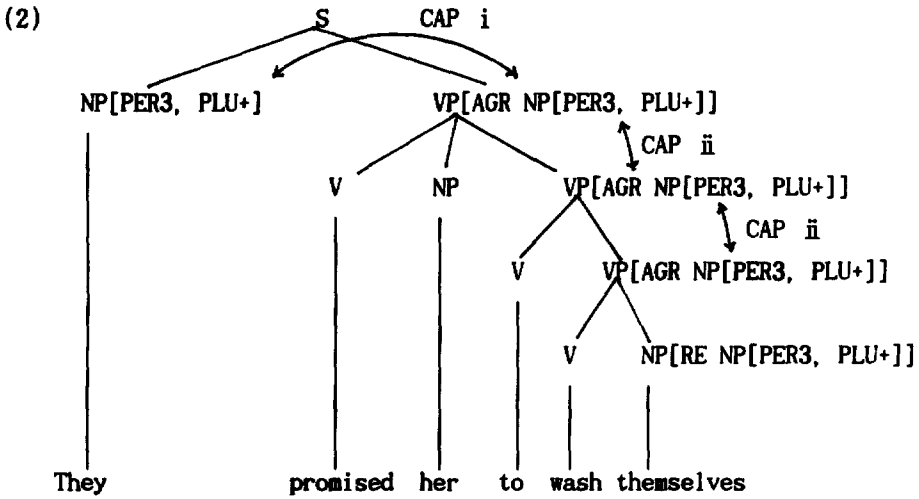
If ϕ is a projection of γ , where $\gamma = C_0 \rightarrow C_1, \dots, C_n$, then a category $\phi(C_i)$ controls $\phi(C_j)$ in ϕ , $1 \leq i, j \leq n$, if and only if

- (i) $TYP(\chi(\phi(C_j))) = \langle TYP(\chi(\phi(C_i))), TYP(\chi(\phi(C_0))) \rangle$, or
- (ii) $TYP(\chi(\phi(C_j))) = TYP(VP)$ and one of the types associated with the head of of γ is $\langle TYP(VP), \langle TYP(\chi(\phi(C_i))), TYP(VP) \rangle \rangle$.

3) GPSG의 Control Agreement Principle(CAP)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85: 89)

Let Φ_r be the set of projections from γ , where $\gamma = C_0 \rightarrow C_1, \dots, C_n$. Then $\phi \in \Phi_r$ meets the CAP on γ if and only 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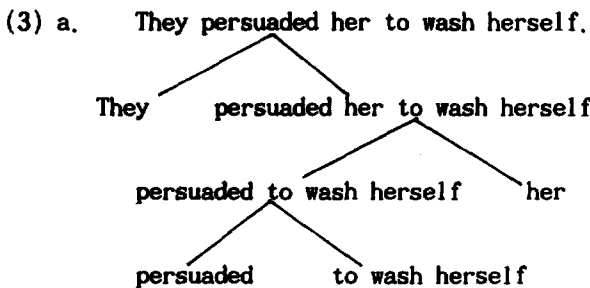
- (i) if $\phi(C_j)$ controls $\phi(C_j)$, then $\phi(C_i)(f_i) = \chi(\phi(C_j)) \sqcup \phi(C_j)\{f_i\}$, where f_i is the CONTROL feature of $\phi(C_i)$.
- (ii) if there is $\phi(C_1)$ which is a predicative category with no controller, then $\phi(C_i)(f_i) = \phi(C_0)(f_0)$, where f_i and f_0 are the CONTROL features of $\phi(C_i)$ and $\phi(C_0)$, respectiv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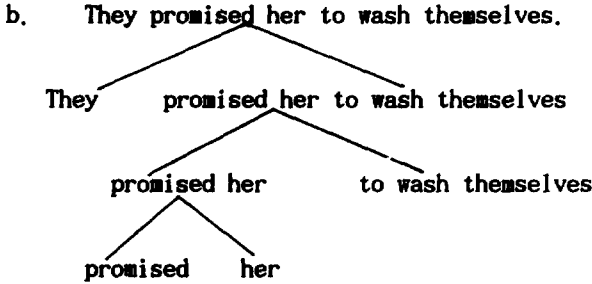


이를 설명하기 위해 GPSG 에서는 VP[INF]의 통제자 선택에 관한 문제는 동사의 TYPE 으로 처리하여 (1)의 문은 표면상 그 형태가 유사하나 promise와 persuade 동사의 유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통제자 선정역시 다르게 된다.

persuade: < VP, < NP, < NP, S > > >
 promise : < NP, < VP, < NP, S > > >

즉 persuade는 먼저 동사구(VP)와 결합하고, 다음에 명사구(NP)와 결합하는 유형의 동사이며, promise는 먼저 명사구(NP)와 결합하고 다음으로 동사구(VP)와 결합하는 유형의 동사이다. 이를 수형도(tree)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통제 대상인 동사구(VP[INF])와 처음으로 결합되는 논항이 통제자가 되는 것이다.⁴⁾ 그러므로 (3a)에서는 her가 통제자이며 (3b)에서는 Kim이 통제자가 된다. 이처럼 GPSG에서는 동사의 TYPE에 의한 논항구조적 제약이 통제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내포주어(unexpressed subject)에 관한 의미해석은 문장구성 성분의 의미유형에 따라 의미해석규칙⁵⁾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례를 보자.

persuade[18]	$f_E(\text{persuade}')$
promise [19]	$\lambda \rho [f_E(\text{promise}'(\rho))]$

- (4) a. Kim persuades Lee to go.
 a' $f_E(\text{persuade}')(\text{to-go}')(\text{Lee}^*)(\text{Kim}^*)$
 $\leftrightarrow \text{Lee}^* \{ \lambda x [\text{persuade}'(\text{to-go}'(x^*)) (x^*) (\text{Kim}^*)] \}$
- b. Kim promises Lee to go.
 b' $f_E(\text{promise}')(\text{Lee}^*)(\text{to-go}')(\text{Kim}^*)$
 $\leftrightarrow \text{Kim}^* \{ \lambda x [\text{promise}'(\text{Lee}^*)(\text{to-go}'(x^*)) (x^*)] \}$

4) 이것은 Rosenbaum(1967)의 최소거리원칙에 입각한 Bach and Partee(1980)의 다음과 같은 설명과 일치한다.

The first NP argument to combine with a functor in which a VP occurs is the semantic controller of that VP.

5) GPSG에서의 의미해석규칙은 Semantic Combinatorics f_E, f_R, f_P 등을 사용하며, 이들의 해석은 의미공준(meaning postulates)에 의해 제약된다 (GPSG: 216 ~ 218 참조).

여기서 (4a)에서는 Lee*가, (4b)에서는 Kim* 이 통제자이며 VP[INF]의 내포주어인 것이다. 이렇게 영어에서 의무통제의 경우는 주문장 동사의 의미적 특성이 각기 다른 유형으로 정의되고, 의미공준에 의해 동사구(VP[INF])의 의미적 주어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GPSG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의무통제에 국한된 매우 제한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해결이 어려운 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첫째는, 동사의 TYPE에 의한 통제자 선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5) a. Kim promised Sandy to attend the party.
- b. Kim promised Sandy to be allowed to the party.
- c. Dana asked Pat to attend the party.
- d. Dana asked Pat to be allowed to attend the party.

여기서 (5) a에서는 Kim이, b에서는 Sandy가 통제자이다. 또 c에서는 Pat이, d에서는 Dana가 통제자이다.

그런데 a, b에서 promise 동사의 TYPE은 <NP, <VP, <NP, S>> 이며, a, b 모두 주어가 통제자임을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GPSG에서는 동사구 보어(VP[INF]) 내부 형태는 구분할 수 없으며 a, b 모두 VP[INF]로 표시 되기 때문이다. 즉 GPSG에서는 promise 동사의 TYPE에 의해 통제자가 정해지는 것이지 VP 보어의 형태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GPSG의 CAP로는 명사구내의 통제문제 또는 VP[INF]가 전치사구(PP)의 통제를 받는 경우의 설명은 불가능하다.

- (6) a. Sandy's promise to Tracy to leave the party early caused quite an uproar.
- b. Many people talked to Mary_i about herself_i.
- c. Sandy pleaded with John_i to wash himself_i.

여기서 (6) a의 VP 보어의 missing subject가 Sandy라든지, b의 herself가 PP내의 Mary와 일치하고, c에서 동사구(VP) 내의 himself가 PP내의 John과 일치함을 GPSG의 CAP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AGR] ⊃ [-N, +V] 이기 때문이다.

세째로, 다음과 같은 경우, GPSG의 동사유형의 분류에 문제가 제기 된다.

- (7) a. Pat signaled to Sandy to leave.
- b. Pat signaled Sandy to leave.
- c. Pat signaled to leave.
- d. Rene helped (to) trim the sail.

여기서 signal을 같은 유형의 동사로 본다면 설명이 불가능 해지며, 각각 달리 생각한다면 통제원리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내제로, 주어 통제 동사류들은 수동화가 불가능하다는 Visser의 일반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GPSG의 수동어휘규칙⁶⁾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 (8) a. Tom promised Mary to leave.
- b. *Mary was promised to leave by Tom.
- c. Tom promised Mary to be allowed to leave.
- d. Mary was promised to be allowed to leave.

GPSG의 수동어휘규칙에서 수동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 $\langle \beta, \langle NP, S \rangle \rangle$, where β is NP or S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promise의 TYPE은 $\langle NP, \langle VP, \langle NP, S \rangle \rangle \rangle$ 이므로 수동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b의 설명은 가능한데 d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섯째, 다음과 같은 문장경계를 넘어선 통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GPSG 통제이론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 (9) a. Sandy made Tom a promise.
- It was to leave the party early.
- b. Kim promised Sandy something.
- It was to support the resolution.

여기서 동사구인 'to leave', 'to support'의 통제자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통제계약이 의미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반영하고 있다. GPSG에서는 동사유형에 의거한 의무통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일문장을 벗어난 화용통제의 경우는 전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HPSG 이론 체계내에서는

6) Gazdar et al. (1985: 219)에서 수동어휘규칙을 설명하면서 수동화가 가능한 동사의 TYPE을 명시하고 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다음에서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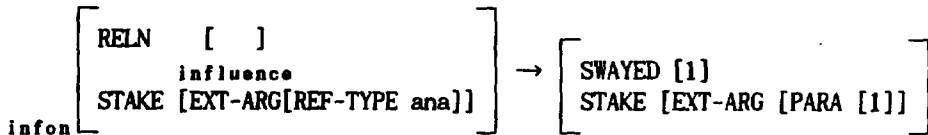
1.2. HPSG의 의미적 통제계약과 사격성 통제원리

HPSG에서는 통제현상을 의미적 통제계약(Semantic Control Constraints: SCC)⁷⁾과 사격성 통제원리(Obliqueness Control Principle: OCP)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이 통제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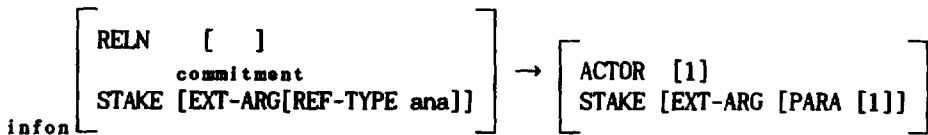
HPSG에서는 먼저 통제 동사들을 세유형으로 나누는데 persuade류의 목적어 통제동사, promise류의 주어통제동사, 그리고 want류의 주어통제 동사가 그것이다. 그래서 persuade류는 영향형동사(influence type)이며, promise류는 약속 또는 언

7) HPSG의 Semantic Control Constraint(SCC)는 다음과 같다. (Sag & Pollard (198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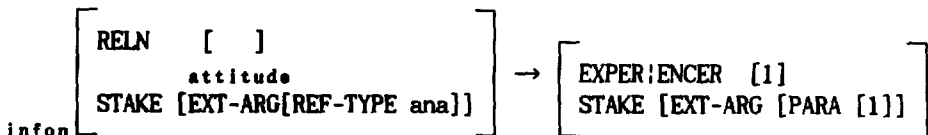
(i) INFLUENCE TYPE VERBS



(ii) COMMITMENT TYPE VERBS



(iii) ATTITUDE TYPE VERBS



8) 사격성 통제원리(Obliqueness Control Principle: OCP)

'The controller of (the unexpressed subject of) a subcategorized for complement cannot be (strictly) more oblique than that complement'

즉 하위범주화된 보어의 통제자는 반드시 사격성이 더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을 주는 의미의 동사(commitment type)이며, want류는 태도형 동사(attitude type)라 하였다. 이러한 동사들의 의미의 차이가 동사구(VP[INF]) 보어의 통제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HPSG 에서는 이런 의미적 일반화를 포착하여 의미역의 개념에 토대⁹⁾를 둔 의미적 통제제약을 수립하여 통제자를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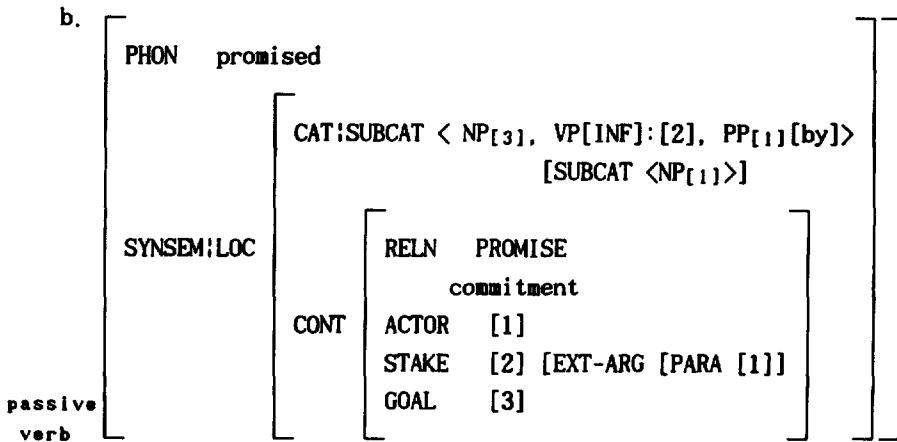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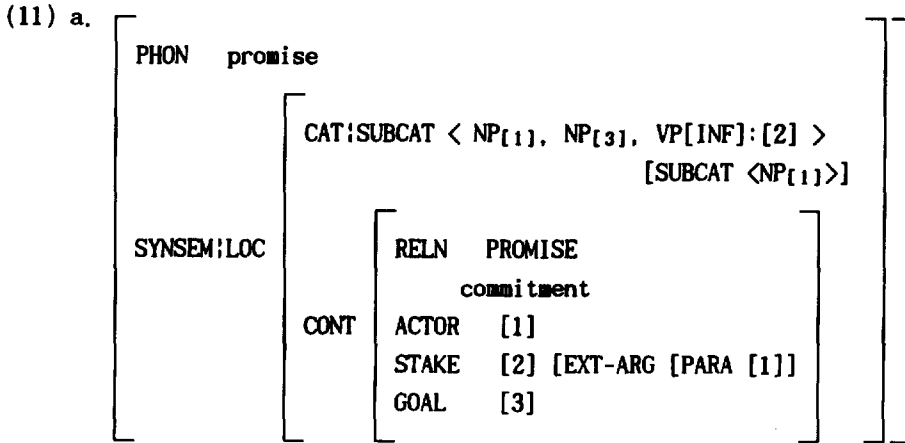
- (10) a. Sandy wants to go.
 b. Sandy promised Kim to go.
 c. Sandy persuaded Kim to go.

여기서 (10) a는 태도형 동사이므로 *to go*의 통제자는 경험자인 주어 *Sandy*이며, b는 약속형 동사이므로 통제자는 행위자인 *Sandy*이며, c는 영향형 동사이므로 통제자는 SWAYED role의 *Kim* 이다.

동사의 TYPE에 따라 설명하는 GPSG와는 달리 HPSG 에서는 이들 동사가 의미적 관계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요구하는 동사들이므로 각기 다른 의미역을 필요로 함을 근거로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적 통제계약(SCC)은 순수한 의미적 토대위에서의 설명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SCC가 모든 곳에서 다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promise* 인 경우, 앞 (8) a, b에서의 설명을 SCC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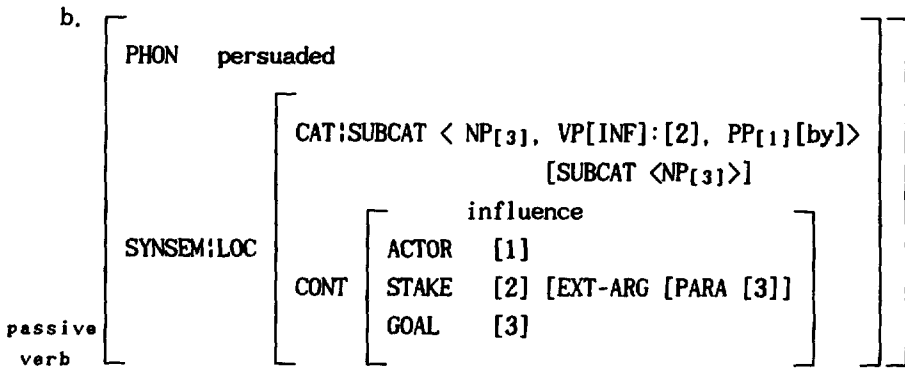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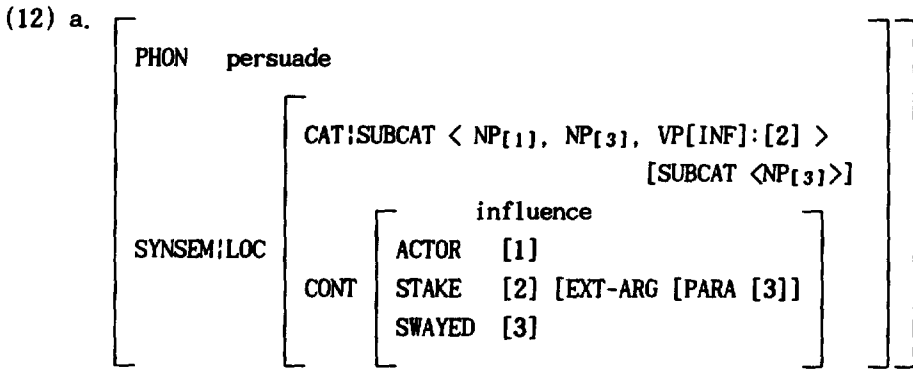
HPSG 에서 수동화는 어휘규칙에 의해 SUBCAT list 에서 두번째로 사격성¹⁰⁾이 작은 NP를 사격성이 가장작은 자리인 주어의 자리로 이동시키고 대신 주어 NP를 by-phrase로 SUBCAT에 나타나게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수동화 규칙은 그 어휘가 가졌던 의미역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AVM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9) HPSG 에서의 의미역에 기초된 이 일반화는 Jackendoff(1974)의 생각을 수용한 것이다.
 10) HPSG 에서의 사격성이라 함은, 술어인 동사나 형용사가 여러요소들 즉 보어들을 거느리고 문장을 이룰때 이들 보어들이 술어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냐의 여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술어와 관련성이 클때를 '사격성이 크다(more oblique)'라고 하고, 술어와의 관련성이 작은 요소를 '사격성이 작다(less oblique)'라고 말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SYNSEM:LOC:CONT의 내용은, promise 이건 promised 이건 동일하다. 그러므로 의미적 통제계약(SCC) 만으로는 (8) b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HPSG에서는 통제에 관여하는 사격성 통제원리(OCP)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필요로 하는 의미역에 바탕을 둔 SCC에 의해 통제자가 정해지고, 이에 덧붙여 통제자는 반드시 통제받는 요소(VP) 보다 사격성이 더 작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SUBCAT에서 반드시 통제자가 VP보어보다 더 좌측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8) a는 위의 AVM (11) a의 경우이므로, SCC, OCP 모두 지켜지고 있으므로 정문이지만, (8) b는 위의 AVM (11) b의, 경우이므로, SCC는 문제되지 않으나 SUBCAT에서 OCP가 위배되고 있으므로 비문임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 persuade와 persuaded의 경우를 비교해 보자.



persuade의 경우에는 영향형 동사이므로 SWAYED-role 을 갖는 NP가 통제자가 되며 수동이 된 경우에도 OCP 및 SCC가 동시에 만족되고 있으므로 정문이며, 이로써 Visser의 일반화를 HPSG의 OCP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무통제중 Equi 동사의 경우였는데 이 SCC와 OCP가 상승동사 (Raising Verb)에서도 설명력이 있는지 보자.

- (13) a. Kim appears to Sandy to be sick.
 b. They believe Sandy to be a diss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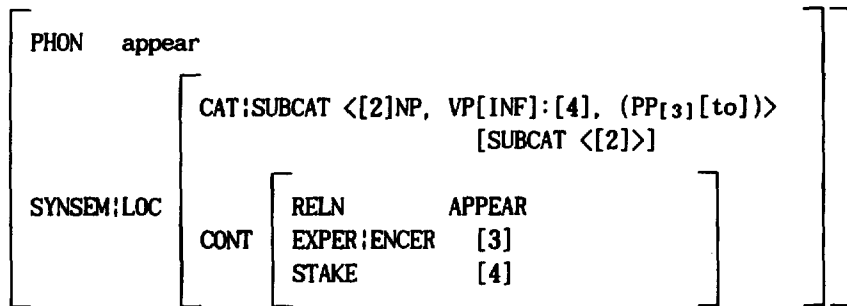
이때 appear, believe의 SUBCAT list는 다음과 같다.

- (14) a. appear : SUBCAT < NP, VP (PP[to]) >
 [SUBCAT <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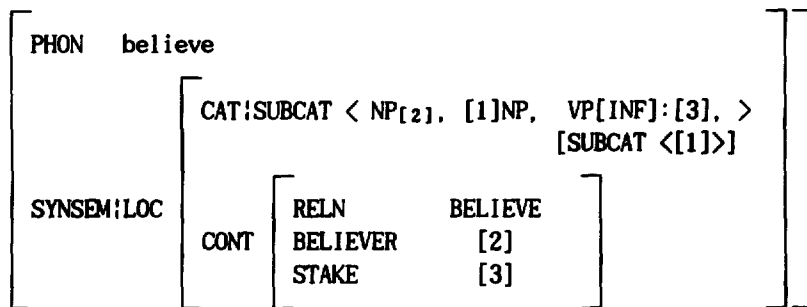
b. believe: SUBCAT < NP, NP, VP >
 [SUBCAT <NP>]

여기서 believe의 경우 VP 보어를 통제하는 통제자가 어느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를 설명할 상승원리(Raising Principle: RP)¹¹⁾를 정의하여 이들에 대한 통제자를 규명하며, 이들 동사들 역시 OCP를 준수함을 다음 AVN 에서 볼 수 있다.

(15) a. Kim appears to Sandy to be sick.



b. They believe Sandy to be dissident.



위의 SUBCAT list 에서 VP의 통제자 NP는 사격성이 더 작으므로 OCP 역시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Pollard and Sag(1989: 37)에서 상승원리(RP)를 다음처럼 정의한다.

- Give two elements X and Y of the SUBCAT list of a lexical form L,
 X is an r-controller of (the unexpressed subject of) Y if and only if
- (1) X is unspecified for NFORM and
 - (2) X's parameter is assigned no semantic role in L.

2. 통제 현상의 분석

지금까지의 HPSG 통제원리를 바탕으로 GPSG 원리에 의한 불충분한 통제현상의 설명을 재분석하고 예외적 동사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보겠다.

2.1. 영어 통제 현상의 분석

앞에서 지적된 문제들 중에서 가장 곤란한 설명이 (5)에서와 같은 통제자 변경 문제일 것이다. 설명의 편의상 여기에 다시 인용하겠다.

- (5) a. Kim promised Sandy to attend the party.
- b. Kim promised Sandy to be allowed to the party.

(5) a에서는 Kim 이, (5) b에서는 Sandy 가 통제자이다. a, b의 관찰에 의하면 VP[INF] 보어내의 형태가 수동화되어 있을때 통제자 변경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16)을 보면 a 에서는 VP 보어내가 수동형이 되어 있는데도 Kim 이 통제자이고, b 에서는 INFLUENCE-type 동사 ask 의 통제자인 Pat이 VP[INF]의 통제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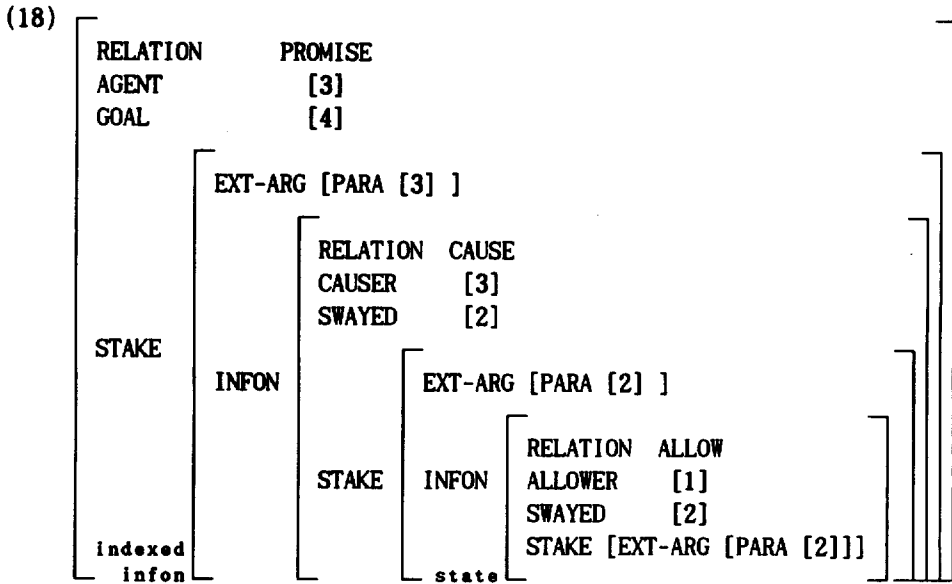
- (16) a. Kim promised Sandy to be hassled by the police.
- b. Dana asked Pat to be hassled by the police.

그러므로 통제자 변경이 VP 보어의 통사적 형태와 관계된다기 보다는 그 VP 보어가 특정한 의미 유형일때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HPSG 에서는 동사구 보어들이 주어진 상황에 의미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경우 이 관계에서의 의미적 요구에 적절하도록 해주는 화용적 개념인 coercion²⁰ 즉 해석의 조정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5) b의 경우 coercion 이 작용되어 (17)과 같이 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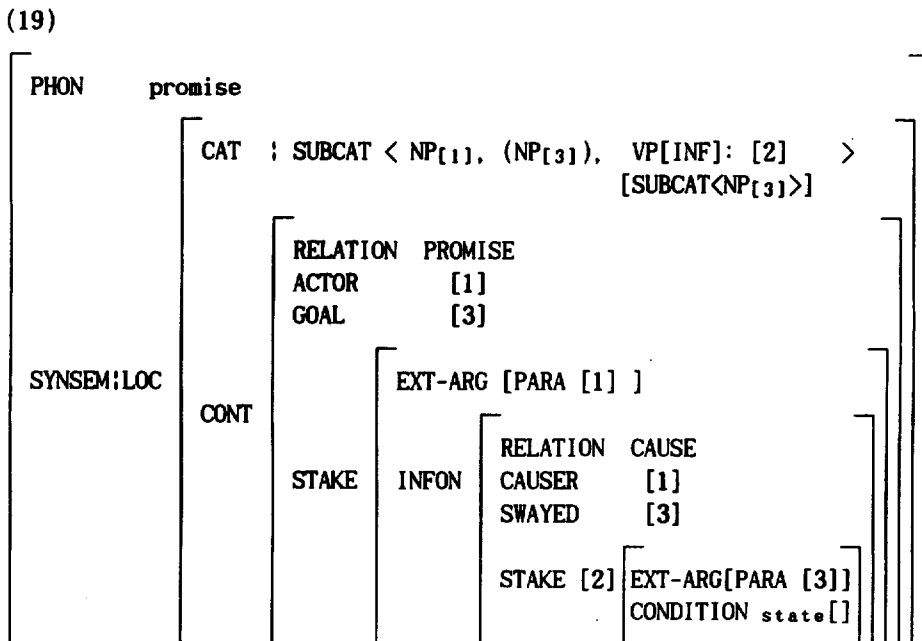
- (17) Kim promised Sandy to cause her to be allowed to attend the party.

12) Coercion은 의미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경우 그 두 해석의 상반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조정작업이다. 그러므로 화용적 조정장치로 볼 수 있다. 예컨대 'to be allowed to leave'의 해석은 'to cause X to be allowed to leave'의 해석으로 조정된다.

(17)의 AVM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조정(coercion) 과정의 어휘규칙이 commitment type의 SCC와 함께 작용되어 다음과 같은 형태의 AVM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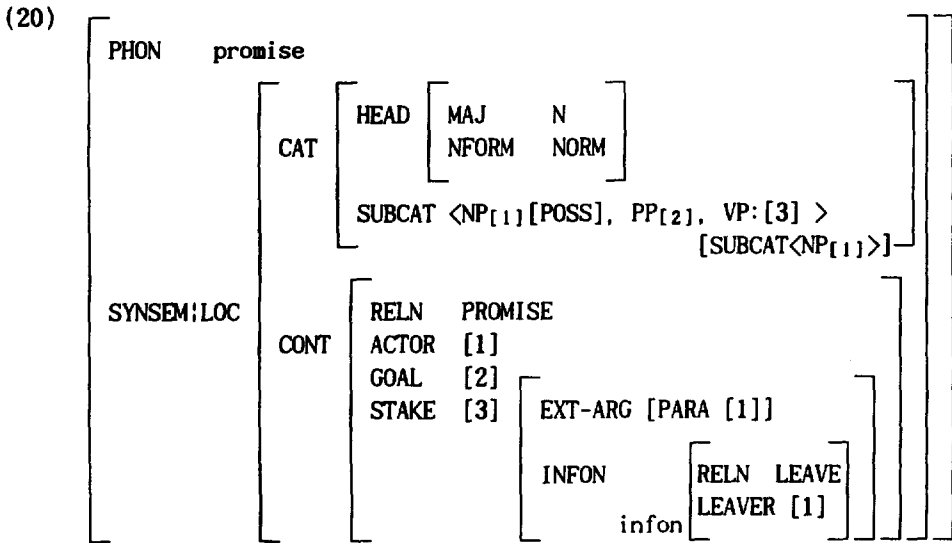


이것은 coercion과 SCC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것이다. OCP 역시 만족된다. 즉 VP[INF]의 통제자 NP[3]는 VP 보다 사격성이 더 작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제기되었던 (6)의 문제점을 고려해 보자. 예를 들어 (6) a의 경우 명사 SUBCAT은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promise: SUBCAT < NP[1], PP[to], VP[INF] >
[SUBCAT<NP[1]>

이를 AVM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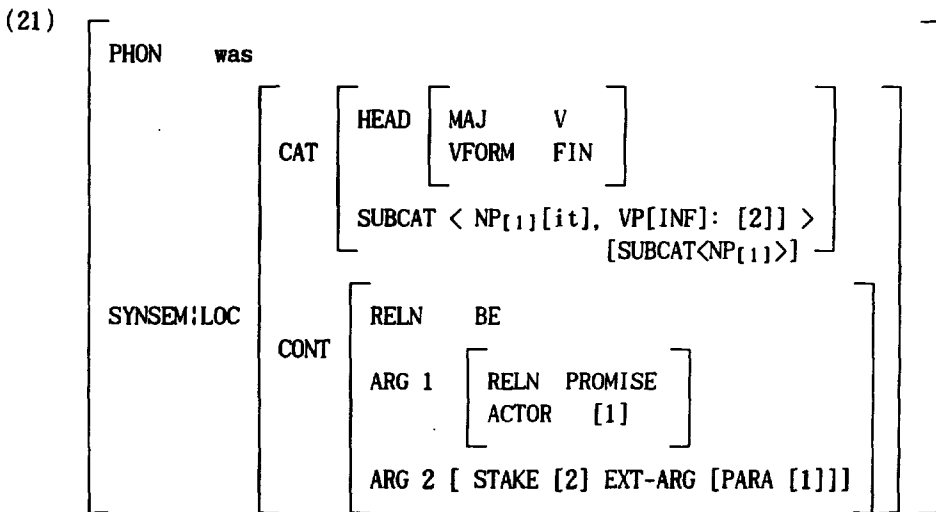


여기서 VP[INF]의 통제자는 ACTOR인 NP[1]이며, NP[1]은 VP[INF] 보다 사격성이 더 작다. 그러므로 SCC와 OCP 공히 동사의 경우와 같이 명사구에서도 지켜지며 동사의 의미에 의한 분류를 기초로 설정된 통제계약이 명사적 구성소내에서도 유효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9)에서와 같은 문장 경계를 벗어난 경우를 보자 편의상 다시 인용하겠다.

- (9) a. Sandy made John a promise.
It was to leave the party early.

HPSG의 의미적 통제계약은 coupla를 넘어서도 적용 가능한데 이는 통제계약이 의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것이다. 위와 같은 담화 통제 현상은 먼거리 통제(remote control)라고도 한다. (9) a에서 'it'은 먼저 NP인 'a promise'와 연결되며 그 어휘적 표현으로 그것이 결합하고 있는 VP 보어인 'to leave'에 관한 통제 계약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a promise'가 it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의미적인 내용 즉 약속의 infon 과 그것의 구성소만이 관계한다고 보는데 it과 같은 3인칭 대명사는 통사적 대상이 아니고 의미적 대상이라는 기초하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다루어지는 통제계약을 기초로 하여 remote control 현상을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coupla는 약속된 행위와 VP[INF]의 의미적 내용간의 단순한 동일성을 나타내 주는 기능을 한다. 다음 AVM 에서 이 관계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미적 통제계약은 언어표현에 대해서라기 보다 기술된 정보소(infon)와 관련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제에 관한 순수 의미적 제약들을 형식화함으로써만이 VP 내에서는 물론이고 NP 내의 통제문제나 remote control 문제등에도 일관성있는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2. 통제원리 적용의 모호성

앞에서 제시된 (7)의 예문을 보자. signal 동사는 Bach의 일반화¹³⁾ 및 Manzini의

13) Bach's Generalization은 목적어통제 동사는 자동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화¹⁴도 어기고 있다.

HPSG 에서는 통제자 선택을 의미에 기반을 둔 통제원리로 설명하고 있으나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7)에서 signal은 그 SUBCAT이 < NP, NP, PP > 또는 < NP, PP[to], VP > 로 하위범주화 되며 이때 PP[to] 또는 NP가 VP의 통제자가 된다. 그러므로 signal은 INFLUENCE TYPE인 infon을 나타내므로, SWAYED 는항이 통제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Bach 및 Manzini의 일반화를 여기는 (7) c도 정문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통제자 선택 문제는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통제자 선택이 담화상황에 의존되는 화용통제문이 될 것이며, HPSG 통제원리 OCP는 공격용 된다는 등의 설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안은 (7) c의 signal을 a, b와는 별도로 SUBCAT < NP, VP >로 또다시 설정하고 순수한 주어 통제의 경우로 보는 방법인데 다음예문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22) a. The car signaled to turn left.
b. John signaled to land.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경우 signal 동사를 INFLUENCE-TYPE 과 COMMITMENT-TYPE으로 이종으로 분류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는 비록 signal 뿐만이 아니다. (7) d 경우 자동사 help는 주어통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는 다음 (23)에서 잘 알 수가 있다.

- (23) a. The students_i knew John helped (to) get them_i / *themselves_i voting rights.
b. Mary_i knew John helped (to) promote her_i / *herself_i.
c. They knew John_i helped (to) get himself / *him_i tenure.

그러나 다음 (24)의 경우와 같은 타동사 help 에서는 목적어 통제가 되고 있다.

- (24) Kim helped Sandy_i (to) get herself_i a raise.

즉 동사의 직목이 VP 보어의 통제자가 될때 그 주동사는 결코 자동화(detranzitivization)을 겪지 않으므로 직목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14) Manzini's Generalization은 표현안된 주어를 갖는 VP 보어는 그 보어를 포함하는 최소절내에 통제자를 가져야 한다는 일반화를 말한다.

그러므로 *signal*의 경우처럼 *help*를 이중으로 분류하는등, 일관된 SCC, OCP의 설명에 대한 약화를 초래하게 되며, 또 이러한 동사들이 등장 할 때마다 별개의 동사로 보고 처리하는 방식은 많은 모호성을 문법설명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 HPSG의 의미적 통제계약(SCC)은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분류되지 않은 동사를 내포하는 예문의 처리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의 자의적 설명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명사의 Adjunct는 명사의 SUBCAT에 표시하고 통제원리로 설명하면서 목적절(*purpose clause*) 이나 SUBCAT에 나타나지 않는 Adjunct[VP]의 통제문제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 같다.

- (25) a. He bought a piano to please his grandmother.
b. John gave Mary a book to please her.

여기서 *buy*, *give*의 SUBCAT은 다음과 같다.

buy: SUBCAT < NP[NOM], NP >
give: SUBCAT < NP[NOM], NP, NP >

즉 (25)에서의 VP[INF]는 ADJUNCT 이므로 SUBCAT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행위자인 GIVER 나 BUYER가 통제하고 있다. 이때 SUBCAT에 근거한 통제원리로는 설명이 곤란하다. 또 다음을 보자.

- (26) a. John gave money to rebuild the church.
b. The university provides a library to work in.
c. The little girl asked the teacher to sit down.

여기서 VP[INF]의 통제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a에서는 '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고, b에서는 '학교에 관계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c에서는 *ask* 동사의 의미에 의한 SCC로는 통제자가 'teacher'가 된다. 그러나 *teacher*와 *little girl*간의 실제세계에서의 힘의 관계를 생각할때 VP 보어 '*to sit down*'의 understood subject는 '*the little girl*'로 봄이 더 가능성 있는 얘기이다. 그러므로 HPSG의 의미적 통제원리의 적용이 실제세계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화용적 통제 계약의 설정역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h. 주장하다. 약속하다. 고백하다.

V [SUBCAT < NP[NOM], NP[DCL, 고] >]

V [SUBCAT < NP[NOM], NP[DAT], VP[DCL, 고] >]

i. 충고하다. 설득하다.

V [SUBCAT < NP[NOM], NP{[DAT] ∨ [ACC]}, VP{[IMP 고] ∨ [COMP 도록]}>]

j. 명령하다. V [SUBCAT < NP[NOM], NP[DAT], VP[IMP 고] >]

그런데 한국어의 SUBCAT은 영어의 SUBCAT 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영어의 경우에는 SUBCAT이 실제문에서의 고정된 어순을 그대로 반영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NP에 격조사가 첨가되어 SUBCAT에 내장된다고 보면 그 NP의 문법적 관계가 명시되므로 어순에 있어 상당히 자유로운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동사구 보어로 일괄 표기되는 한국어 VP 보어들의 그 구체적 내용은 각기 조금씩 다르다. VP [COMP 고, 게, 도록, 려고, ...], 또는 VP {[DCL, IMP, INT, ...], QTE 고}, VP [NOML, {음, 기}] 처럼 다양하게 표기될 것이다.

3.2. 한국어 통제구문

앞에서 주요논의가 되었던 HPSG의 SCC와 OCP등의 원리들이 한국어 통제현상에도 올바른 적용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 VP 구문은 다음 (27) 처럼 NP에 내포 되거나 VP에 내포되는데 여기서는 (27) c와 같은 동사구 보어가 VP에 내포 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 하겠다.

(27) a. 민수가 [배가 아픈]척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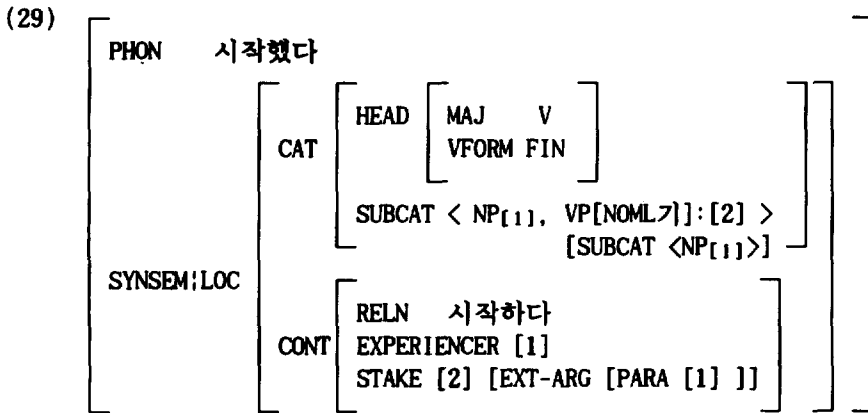
b. 민수가 [시험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c. 민수가 영이를 [학교에 가도록] 설득 했다.

다음 (28) 예를 보자. 이들 동사구 보어들의 통제자가 어느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주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좌우 된다.

- (28) a. 민수가 [공부하기] 시작했다.
- b. 민수가 [집에 가려고] 했다.
- c. 민수가 [집에 가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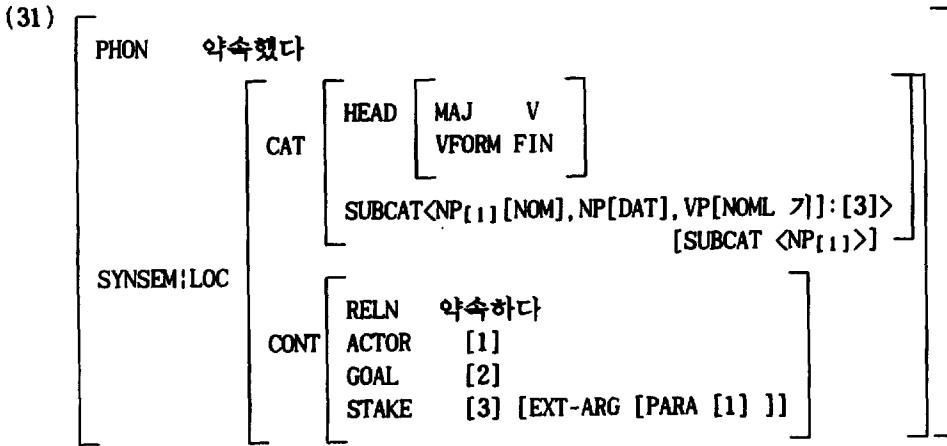
여기서 '시작하다', '싶다', '하다' 등은 주어통제 동사들이다. 또한 Williams (1980)의 정의에 따라 말하면 모두 의무통제 구문이다. (28) a를 AVM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작하다'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서 통제자가 정해지면, 한국어에서도 사격성이 더 작은 NP가 사격성이 더 큰 VP 보어를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약속형 동사의 경우를 보자.

- (30) a. 민수가 영이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 b. 민수가 영이에게 [학교에 가기를]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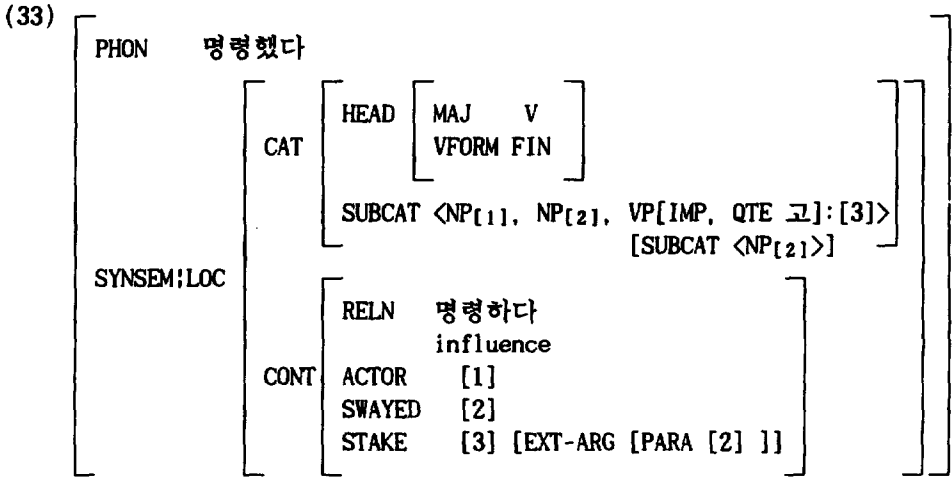
여기서 VP[NOML 기]와 VP[DCL, QTE 고] 보어의 통제자가 어느것인가 하는 문제는 '약속하다' 동사의 의미와 관계한다. '약속하다', '맹세하다', '단언하다', '거절하다' 등의 동사들은 의미통제제약(SCC)에 의해 주어진 Actor가 통제자가 된다. 이를 AVM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통제자인 주어 NP가 통제대상인 VP 보다 사격성이 더 작다. 그러므로 OCP가 지켜지고 있다. 또 다음예를 보자.

- (32) a. 민수가 영이에게 [공부 하도록] 강요했다.
 b. 민수가 영이에게 [공부 하기를] 충고했다.
 c. 민수가 영이를 [공부 하도록] 설득했다.
 d. 민수가 영이에게 [공부 하라고] 명령했다.
 e. 민수가 영이를 [공부 하게] 했다.

(32)에서 보면 한국어에서 내포 동사구의 COMP의 형태가 주동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것 역시 주동사의 의미역할 관계에 영향을 받음을 지적할 수 있고 따라서 SCC에 의한 통제자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32)의 VP 보어들은 그 형태적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하지만 SUBCAT 에서는 모두 VP 보어이다. 위의 (32) 동사들은 영어의 SWAYED형 동사와 일치되며 NP[ACC] 또는 NP[DAT]가 통제자가 된다. AVM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들 VP의 통제자는 SWAYED NP이다. 이처럼 한국어의 경우에도 VP를 하위범주화하는 주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통제자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것은 HPSG의 의미 통제원리인 SCC가 보편적 원리임을 알 수가 있고 OCP 역시 지켜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어는 화맥에 의존성이 높은 언어이며 따라서 생략이 비교적 자유롭고,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는 예가 허다하다.

- (34) a. 민수가 [공부하도록] 설득했다.
- b. 민수가 [학교에 가라고] 명령했다.
- c. 민수가 [공부하기를] 충고했다.

여기서 VP 보어의 의무 통제자가 생략되고도 한국어에서는 문이 성립된다. 이렇게 의무적 통제자가 생략되는 경우는 담화상의 화제에 오른 인물이 통제자가 되거나 화맥에 있는 청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32)에서 처럼 통제자가 문에서 VP와 함께 나타나게 되면 항상 의무통제가 된다. 한국어는 이처럼 구조적인면 보다는 담화 및 화용적인 면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Bach의 일반화 및 Manzini의 일반화 등은 그 설명력이 약화되며, 이는 의무적인 통제자가 생략되고도 담화 상황에서 통제자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영어의 경우는 주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의한 의미통제가 주류를 이루는데 비해 한국어의 경우는, SUBCAT에 나타나는 보어들중 실제문에서는 한 두 요소가 생략된채 사용되어 문맥에서 적절히 통제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히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에서 HPSG의 의미통제계약(SCC)이 한국어 예에서도 적용이 가능함을 보았고 SUBCAT의 사격성 위계에 의한 통제원리인 OCP도 위배되지 않음을 보았다. 그러나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화용통제가 통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색에 기인함을 알 수가 있다.

4. 마무리

이 논문에서는 GPSG, HPSG 통제원리를 비교하고, 특히 GPSG에서의 통제현상 설명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HPSG의 의미적 통제계약(SCC)과 사격성 통제원리(OCP)에 입각하여 그 문제점을 다시금 논의하였고, 한국어 자료에 대해서도 이 원리들을 적용해 봄으로써 그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HPSG에서는, 통제현상의 설명을 상위문 동사의 의미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의무통제는 물론, 문장경계를 벗어난 통제문제까지 확장 설명이 가능함을 보았다.

한국어의 통제문제는 주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의한 통제자 선정이 가능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언어적 특성상 생략이 비교적 자유로와 통제자 선택을 화맥에 의존하는 화용통제의 경우가 빈번하며 이때는 의미적 통제계약과 원리들의 지배를 받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설명은 HPSG 문법체계 내에서는 AVN 속의 속성 CONTEXT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 화용통제원리의 수립에 대해 앞으로의 그 가능성을 어느문법체계보다 많이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Bach, Emmon. 1982. Purpose clause and control. P. Jacobson and G. K. Pullum(eds.), *The Nature of Syntactic Representation*.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Borsley, Robert D. 1987. Subject and complements in HPSG,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Reprot No. CSLI - 87 - 107. Stanford University.

- Bresnan, Joan. 1982. Control and complementation. Joan Bresnan (e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Cutrer, L. M. 1987. Theories of obligatory control. Robert D. Van Valin, jr. (ed.), *Davi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Dowty, David R. 1985. On recent analyses of the semantics of control. *Linguistics and Philosophy* 8, 291-331.
- Gazdar, G., E. Klein, G. K. Pullum, and I. A. Sag. 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Oxford: Basil Blackwell.
- Jones, Charles. 1988. Thematic relations in control. Wendy Wilkins(ed.), *Syntax and Semantics* 21. San Diego: Academic Press.
- Kim, Nam Kil. 1982. Verb phrase complements in Korean.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lected papers from SICOL-1981*. Seoul: Han Shin Publishing Co., 453-465.
- Manzini, Maria Rita. 1983. On control and control theory. *Linguistic Inquiry* 14-3, 421-446.
- Pollard, C. and I. A.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ume I: Fundamentals*.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University.
- _____ . (to appear).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ume II: Topics in Binding and Control*.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University.
- Sag, I. A. and C. Pollard. 1989. An integrated theory of complement control. Paper presented for the Kyung H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guistics Studies, at the Kwangneung Campus of Kyung Hee University.
- Zec, Draga. 1987. On obligatory control in clausal complements. Masayo India et al. (eds.), *Working Papers in Grammatical Theory and Discourse Structure*. CSLI Lecture Notes No. 11, Stanford University, 139-168.